



5월20일은 협회창립 28주년

— 본회 임직원 “회원권익보호 및 양록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터” —

1975년 5월 20일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 받은 본회가 오는 5월 20일을 기점으로 만 28주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.

▲ 양록업의 선진화 ▲ 목장 경영의 내실화 ▲ 녹용 내수량의 극대화 ▲ 유통구조의 현대화 ▲ 가공이용의 과학화를 기본운영방침으로 삼고 출발한 본회는 지난 28년 동안 각종 정책개선활동, 대정부 활동, 양록농가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.

1990년 녹혈생산 합법화, 1993년 녹용의 축산물 등재, 1994년 녹용 특소세 폐지, 1999년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 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, 2001년 사슴의 살처분 보상 및 장려금 지급대상 포함, 2003년 사슴 자가도축 존속 등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, 안정적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에 충실해 왔다.

본회가 출범할 당시 국내 사육농가는 380여 농가, 사육두수는 3천 6백여 마리였던 것이 현재는 1만 5천여 농가가 약 25만여두의 사슴을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돼 양록산업은 해마다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산업의 성장으로 말미암

아 생산자단체인 본회의 역할도 해마다 더욱 커지고 있다.

지난 28년 동안 본회 수장도 9명이 자리를 오고갔다.

초대부터 6대까지 회장업무를 수행한 이남용 회장을 비롯, 6~7대 박용만, 8대 허빈, 9대 허만기, 10대 안정식, 11~12대 이덕신, 13~14대 최창호, 14대 김은성 회장을 거쳐 현 김수근 회장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.

본회 김수근 회장은 창립 28주년을 맞아 “30년 가까운 장구한 역사를 지탱해올 수 있었던 근본 힘은 회원의 애정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했을 것”이라 말하고 “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바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”며 각오를 새로이 했다.

더불어 “산업의 안정적 기반마련 및 항구한 발전은 산업종사자들의 의지와 뜻이 한곳으로 집중될 때 가능하다”며 협회원으로서의 동참을 촉구했다.

한편 전국 지회 및 양록인, 양록업 관련업체 등은 본회의 창립 28주년을 기념코자 본회 회보 『한국양록』에 축하 광고를 게재,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. **한국양록**